의료비 · 국민연금 지원 등 기초복지 '탄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시행 10주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1월 25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성과 등 주제로 토론회 개최
중앙 · 교구본사 역할 등 모색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10년간, 입원진료비 · 요양비 지원규모가 1410건, 13억 69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20년 기준으로 2963명에게 24억 4230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0월 1일 승려복지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10년의 성과는 입원진료비 · 요양비 지원제도의 안착으로, 2011년 첫 지원건수 2건에서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289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병고로 고통 받는 스님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종단 승려복지의 기틀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2015년부터 지원대상이 만65세 이상 무소득 · 무소임자에서 구족계 수계자 전체로 확대되면서 지원인원과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승려복지회는 "지원인원보다 지원건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 스님이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로 향후 장기입원스님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부터는 혜택의 범위를 재차 확대했다.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에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으며, 기존 시설입소 요양비만 지원했던 것에서 나아가 재가요양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외래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도 시작했으며, 만65세 이상 스님에 대해서는 임플란트와 틀니와 관련한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유의미한 성과로 꼽힌다. 국가제도를 활용해 스님들이 최소한의 지원으로 노후까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지만, 스님들의 경우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컸다. 원불교와 가톨릭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반면, 조계종의 경우 2011년 조사 당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승려복지회가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17년 498명, 2018년 278명, 2019년 293명, 2020년 273명의 스님이 신규로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4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스님은 2963명, 지원규모는 24억 4230만원 가량이다.

승려복지회는 점차 확대되는 지원규모를 감안한 재정적인 토대마련을 위해 2020년 7월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 종단 소속감 고취는 물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시행 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년새 참여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종단 승려복지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를 방증했다.

승려복지가 교구본사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이뤄진데 비해, 현재 전국 각 교구본사 차원에서 승려복지제도를 운영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직지사와 선운사, 화엄사와 해인사, 봉선사 등이 승려복지규정을 제정해 운영중이며, 이가운데 일부는 승려복지 전담직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신흥가와 고운사, 해인사, 봉선사가 제적승려를 위한 수행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주사와 월정사, 마곡사, 화엄사는 선방수좌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등 각기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는 그간 총무원장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돼 온 종단의 숙원과제였다"며 "제33대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당시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종단 핵심사업으로 시행된 후 제34대 총무원, 제35대 총무원, 제36대 총무원을 거치면서 제도 안정화와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승려복지회는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법석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관람료 '통행세'로 매도"

조계종, '봉이 김선달' 발언한 정청래 의원에 공개사과 촉구
불교계 · 사찰 명예 훼손 심각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의 발언으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개 참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조계종은 10월 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는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시발점은 전통사찰들이 국가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강제편입되면서부터다.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고 사찰은 이를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논의절차 내지 승인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그럼에도 정청래 의원은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선언했고 그로 인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불교계로 전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양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참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지희 기자

동남아 사찰 4차 긴급지원…누적 수혜사찰 28곳

로터스 월드와 전국비구니회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에

코로나19 사태로 탁발이 어려워진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의 사찰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지난 6월부터 전개한 '동남아시아 사찰긴급지원캠페인'이 한국불자들의 온정을 토대로 최근 4차 지원을 완료했다.

로터스월드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안 미얀마, 라오스 사찰 4곳을 대상으로 4차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차 지원은 쌀 220포대, 라면 200박스, 채소 100kg, 간장, 설탕 등 각종 소스류 20박스, 비누 20박스 분량이다. 현재 기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누적된 수혜사찰은 3개국가 총 28곳, 수혜인원은 총 4,700여명(캄보디아 1,000여명, 미얀마 1,600여명, 라오스 2,100여명)이다.

미얀마의 경우 양곤 지역의 데진예쪼(Thazin Yay Kyaw) 쉐야따나(Shwe Ya Ta Nar) 사찰을 지원했다.



동남아 사찰긴급지원캠페인 4차 지원대상인 미얀마 쉐야따나 사찰.

데진예쪼 사찰은 비구 · 비구니 스님 80여명과 50세 이상 일반 수행자 25여명 등 총 10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쉐야따나 사원은 초 · 중 · 고교 과정 동자스님 90여명과 교사 등 모두 110여명이 생활하는 사원학교다.

로터스월드에 따르면 사찰지원캠페인 대상국가 가운데 미얀마 사찰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에 군부쿠데타 이후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찰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사찰은 대중 수가 많고 운영하는 사원학교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찰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의 지역조사 결과 사찰 내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동자스님 대부분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터스월드는 "사찰 내 동자스님 수가 많은 양곤 지역 사원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미얀마의 경우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사찰이 운영하는 사원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등 미얀마 교육 체계의 한 축을 사원학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불자들의 보시가 줄어 사원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워지는 등 미얀마 교육체계의 근간이 흔들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라오스의 경우 방비엥 지역의 왓 폰 펭(Wat Phone Pheng), 왓 켓코 바나람(Wat ketkeo vanaram) 사찰을 지원했다. 이 두 사찰은 방비엥 지역의 중소규모 사찰로 대형사찰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왓 폰 펭 사찰의 경우 로터스월드가 지원한 식료품을 주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찰에 다시 나누는 등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캠페인은 기간 특정 없이 지속되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법원,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대전지법, 10월7일 판결
사노위, "1심 승소 환영"

법원이 성전환을 이유로 故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환영입장을 발표하고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멈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10월 7일 변희수 하사가 생전 육군에 제기했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노위는 "변 하사가 강제 전역 된지 624일만의 판결"이라며 "변희수 하사를 군대에서 아낀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노위는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육군이 1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국회 역시 곳곳의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육군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포기를 통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과오를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변희수 하사도 이번 재판 승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재차 애도의 뜻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Since 1972 80쇄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권에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는 부처님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드립니다.

법보시〈불교성전〉
정가 ~~42,600원~~ → 39,000원
법정스님의 〈불교성전〉이 50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읽기 쉬워진 〈불교성전〉을 법보시하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의 새로운 기획!
교계 처음 제작, 〈야전 불교성전〉 & 읽으며 따라쓰는 〈불교경전 필사본〉



〈불교성전 필사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제작
190×260mm
상권 288쪽, 하권 360쪽
각 권 값 15,000원
세 트 값 30,000원

〈야전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지음
125×187mm
824쪽(양장본)
값 24,000원

법보시 불교경전 세트



SET1 〈불교성전 + 상월선원〉
정가 ~~58,600원~~ → 53,400원
〈불교성전〉과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의 희망을 말하는 〈상월선원 – 천막결사 90일 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T2 〈불교성전 + 선종사부록〉
정가 ~~60,600원~~ → 55,200원
〈불교성전〉과 참선이 무엇인지,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행자와 일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혜거 스님의 〈선종사부록〉을 담았습니다.



SET3 〈불교성전 + 불교입문〉
정가 ~~64,600원~~ → 58,800원
〈불교성전〉과 동국대 불교대학이 불교 입문자들을 위해 새롭게 펴낸 불교학 정통교과서 〈불교입문〉을 담았습니다.

세트구성 ① 〈불교성전〉과 다른 추천도서로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② 〈불교성전〉과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가능합니다. ex)염주, 반지, 공진단, 학교기념품 등 ③ 선물하시는 분의 인사말 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 판 문 화 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주문전화 02-2264-0142 주문팩스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